

지역 소식통

완주군,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완주군이 오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완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소득이 없고 결손 발생한 법인 포함)이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해 4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우편, 방문신고 모두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씩 인하돼 0.9%~2.4%의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법인에 납부기한을 연장받고 매출액 50% 이상 하락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원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2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8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또는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 계획이다.

이번 추가모집 대상은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사업 신청은 5월 31까지 건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슬레이트 최대 550만원, 지붕개량은 슬레이트와 동일 면적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특장차산업 육성계획 수립

미래 모빌리티산업 우위 선점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2일 '특장차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에 따른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이찬준 김제부시장을 비롯해 전북자치도 최재길 주력산업과장, 김제시의회 양운엽 경제행정위원장, 전수관 의원 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자동차융합기술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연구원, 전주대학교 등 관계자 및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의 착수보고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용역을

진행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특장차산업 육성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특장차산업 현황분석과 성장 전망, △특장차산업 미래 청사진을 위한 정책제안,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특장기반 연계 산업군 발굴, △국가 및 전북자치도 대응 사업 발굴 등이 설정됐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특장차 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 및 국내·외 경제적, 산업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특장차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특장차산업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찬준 부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미래 특장차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예산 확보 및 공모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김제시 주력산업인 특장차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김제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특장차산업 기반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비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지난 12일 '특장차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에 따른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2일 김제시민운동장 및 수변공원 일원에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김제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성료

'치매' 부정적 인식 개선 목적

김제시(시장 정성주)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2일 김제시민운동장 및 수변공원 일원에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 실천으로 치매 극복을 기원하며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치매(애) 희망을 나누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치매환자 및 가족, 시민 500여명이 함께 했으며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치매예방 체조, 수변공원 걷기 등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7개의 건강 홍보·체험 부스를 운영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주고, 중년 여성농업인CEO 연합회에서 바자회 물품과 직접 생산한 농산품을 전시·판매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원활한 행사 진행과 안전을 위해 치매 파트너 봉사자들이 곳곳에서 힘써주며 특히 중년여성농업인CEO 연합회가 연일밥과 된장국을 제공해 운동 후 허기를 달래 줬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치매는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이번 행사로 치매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해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광활면 창제지구 지적재조사조정금 현지 접수

내일부터 25일까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4회(16일, 18일, 23일, 25일)에 걸쳐 광활면 창제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돼 토지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조정금 청구서를 광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돼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발생되며, 면적이 증가하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이 부과되고 면적이 감소

하면 조정금을 지급하게 된다. 광활면 창제지구는 지난 2022년 3월 25일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된 후 김제시 경제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1월 22일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후 지적재조사조정금을 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다.

시 관계자는 광활면 지역주민들이 농번기임을 고려하고, 고통의 토지소유자들이 조정금 청구를 위해 시청까지 원거리를 이동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현장에서 직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만나 청구서 작성 지

원 및 구비서류 접수와 사업 완료된 경계설명 등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은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잘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불부합지 해소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지적재조사팀(☎063-540-3907)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축산 약취저감 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축산 약취저감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이날 용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박비오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 약취저감방안을 주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축산 약취 발생의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약취 방지

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돼지 및 재활용 농가 외 닭·오리(약 50개소)의 가금 농가를 추가해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축산 농가들은 축산 약취를 개선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으며, 약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

대를 형성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축산 약취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접수된 약취 관련 민원 중 200여건이 축산 관련 약취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축산 약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며, 앞으로 축산 농가와 주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6월 '완주어때! 숙박대전' 참여업체 모집

22일까지 모집 후 5월부터 정보 등록 등 절차 진행

완주군은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위해 오는 6월 진행할 '완주어때! 숙박대전' (이하 완주숙박대전)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지난 12일 전했다.

완주숙박대전은 오는 6월 문체부 주관 '여행가는 달' 기간 동안 진행하며 온라인여행플랫폼(OTA)과 연계한다.

참가업체는 온라인 등록절차 무료 상담 지원과 이벤트 기간 동안 숙박요금 할인 쿠폰 발행, 플랫폼 채널사 메인배너, 앱 푸시, 카테고리 배너, 카카오 메시지 등을 통한 홍보가 진행된다.

군은 오는 22일까지 참여 희망 숙박시설을 모집하고, 5월에는 OTA 채널 무료 숙박 정보 등록 지원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완주군 내에 소재하고 관련 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로 등록·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호텔, 리조트, 모텔, 펜션, 풀빌라, 캠핑장 등 숙박시

설이면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063-280-3991)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는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숙박대전으로 체류형 숙박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온라인 예약서비스 체계 마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해 한국관광 데이터 랩 분석 결과 군은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8% 증가율로 2,00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다녀갔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온라인 예약 체계가 취약한 숙박시설을 활성화해 체류형 관광상품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염재복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